

월스트리트 파인더

Ep. 196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



주간 경제지표 & 일정

	경제 지표	일정
6일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5월 소매판매·생산자물가지수 •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뉴욕 연준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 • 행사: 한국,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국제 머신러닝 학회(ICML 2026, ~11일)
7일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5월 가계소비지출 • 중국, 6월 외환보유액 • 미국, 5월 무역수지·6월 뉴욕 연준 소비자기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삼성전자·LG전자 2분기 잠정(예) • 공개: 미국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 행사: NATO 정상회담(~8일, 튀르키예)
8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5월 경상수지 • 미국, 5월 소비자신용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6월 FOMC 회의록 • 채권: 미 국채 10년물 입찰 • 실적: 레비 스트라우스
9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6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 대만, 6월 수출 • 미국, 6월 기존주택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한국옵션만기일 • 실적: 펩시코
10일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6월 생산자물가지수 • 중국, 6월 차량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 SK하이닉스 ADR(나스닥) • 공개: IEA 원유 시장 보고서 • 실적: TSMC 6월 매출, 델타항공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주:현지시각 기준

Executive Summary

1) Issue Dive: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생태계 내재화
 -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는 각각 연산·저장·실행을 담당
 - 위 세 축이 연결될 때 한국형 AI 산업 구조가 완성
 - 이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장기 성장 동력 확보 목표
- 타임라인과 병목
 - CapEx 집행 순서에 따라 실적 가시성 및 수혜 산업 차이 발생
 - 초기 수혜는 전력 인프라, 소부장, 건설 등과 같은 선행 밸류체인에서 확인
 - 핵심 리스크는 수요보다 병목: 전력망, 용수, 토지 수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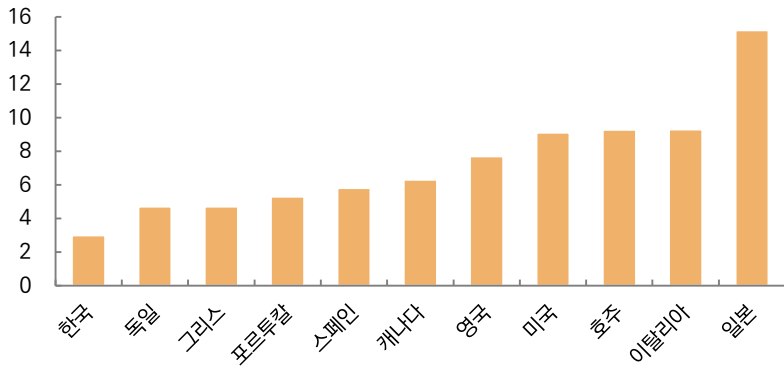
2) Weekly Preview

- K-반도체에 쏠린 이목
 - 삼성전자: 7일(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영업이익 86조원 예상
 - SK하이닉스: 10일(금) 나스닥에 ADR 상장. 약 \$30B 자금 조달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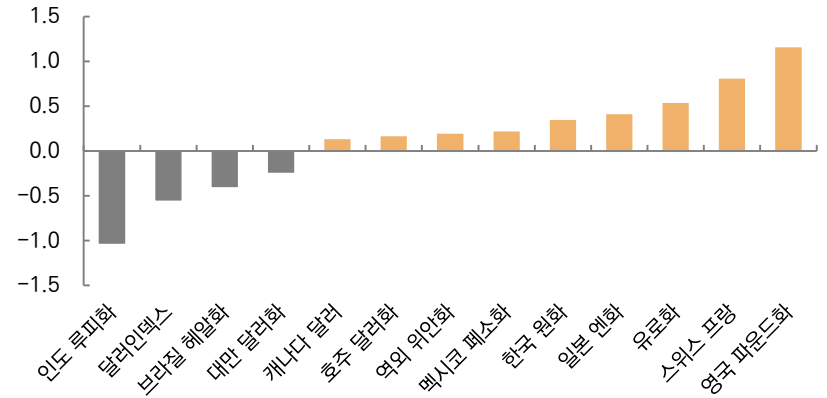
Global Market Snapshot(6.26~7.2)

유가 하락했지만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금리 인상 기대 강화, 일본 엔·한국 원 각각 40년·17년 만에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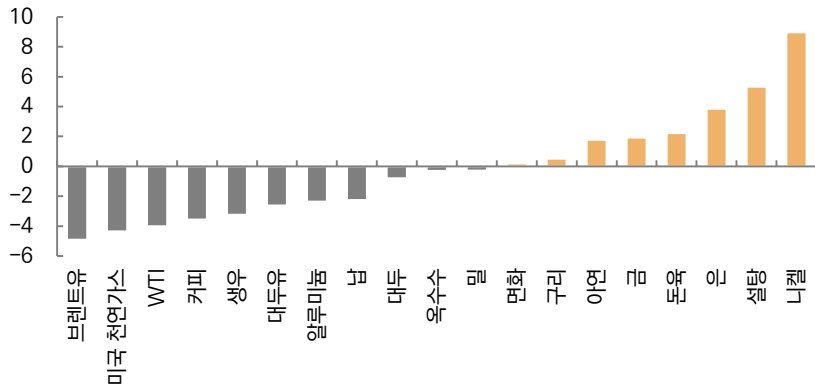
주요국 10년 국채 등락폭(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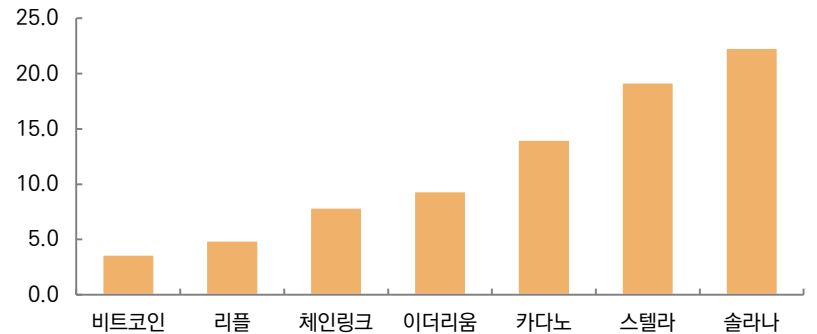
주요국 통화 가치 등락률(%)



블룸버그 상품지수 품목별 등락률(%)



나스닥 CME 암호화폐 지수 항목별 등락률(%)



한국을 이끌 '삼각 축'

- 지난 6월 29일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핵심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은 단순한 설비투자 확대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생산요소인 연산·저장·실행을 국내에 내재화하는 국가 산업전략임.
- 반도체는 '연산', AI 데이터센터는 '저장·학습', 피지컬 AI는 '산업 현장 적용'을 담당하며, 세 축이 연결될 때 한국형 AI 생태계가 완성. 정부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공공 인프라 지원을 결합해 AI 패권 경쟁, 산업 위기 극복, 국토·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초격차기술력위에

주요내용
800조원 규모 투자로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
충청권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패키징 거점 육성 등 156조원 투자



데이터센터
학습을 더해

주요내용
5개 권역별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AIDC) 구축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 AIDC 조성 후
2035년까지 10GW 규모 추가



완성되는 피지컬 AI

주요내용
피지컬 AI 글로벌 1강·AI 로봇 제조강국 도약
제조업과 사너지 극대화를 위한 MAX 가속화
피지컬 AI 모델 등 풀스택 국산화 및 수출 상품화

자료: 청와대

한국판 AI 생태계

-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은 연산(반도체)-저장(AIDC)-실행(피지컬 AI)을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연결하는 데 있음. 이는 한국이 AI 기술 소비국에 머무르지 않고, AI 인프라와 산업용 AI 솔루션을 수출하는 국가로 전환하려는 시도
-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 민간의 자본·기술 역량이 적기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력·용수·부지·인허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정부는 대통령 직속 담당관을 배치해 프로젝트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밝힘.

AI 생태계의 핵심 기능별 역할

구분	반도체 초격차		AI 데이터센터 (AIDC)		피지컬 AI (AI 로봇)	
핵심 전략	3S+1F 전략 (속도전·거점전·선도전 + 총력지원)		소버린 AI(Sovereign AI) 연산 주권 확보 및 글로벌 거점화		3M 전략 (제조 AX·요소기술 확보·양산체계)	
주요 투자 및 거점	권역	· 서남권: 800조 원 (메모리 팹 4기) · 충청권: 81조 원 (HBM/패키징) · 영남권: 270조 원 (소부장 혁신)	기업	· SK: 15GW (전국, 1000조 원) · GS: 2.4GW (동해, 30조 원) · 네이버: 1GW (세종, 규모) · 삼성SDS: 210MW(해남, 17조 원)	권역	·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부품 클러스터 · 영남권: 로봇 산업 벨트 (기계/자동차 연계) · 대경권: 부품기업 전환 지원
	기업	· 삼성전자: 총 2,655조 원 · SK하이닉스: 총 1,100조 원	정부	· AIDC 특별법 제정 · AIDC 전용 요금제 도입	기업	· 현대차 그룹: 총 9조 원 · 삼성: 총 60조 원
	정부	· 27년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2조원)			정부	· 3대 취약 부품에 R&D 예산 집중 · 5년간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핵심 목표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 2배 확대 용인 팹 완공 시기 최대 12년 단축		2035년까지 18.4GW 인프라 완성 아태 지역 점유율 25~32% 확보		2030년 로봇 생산 글로벌 3강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기대효과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 균형 발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공고화		데이터센터 수출 산업화 국산 NPU 및 냉각 솔루션 생태계 육성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M.AX) 취약부품 국산화 (액추에이터, 로봇팔, 로봇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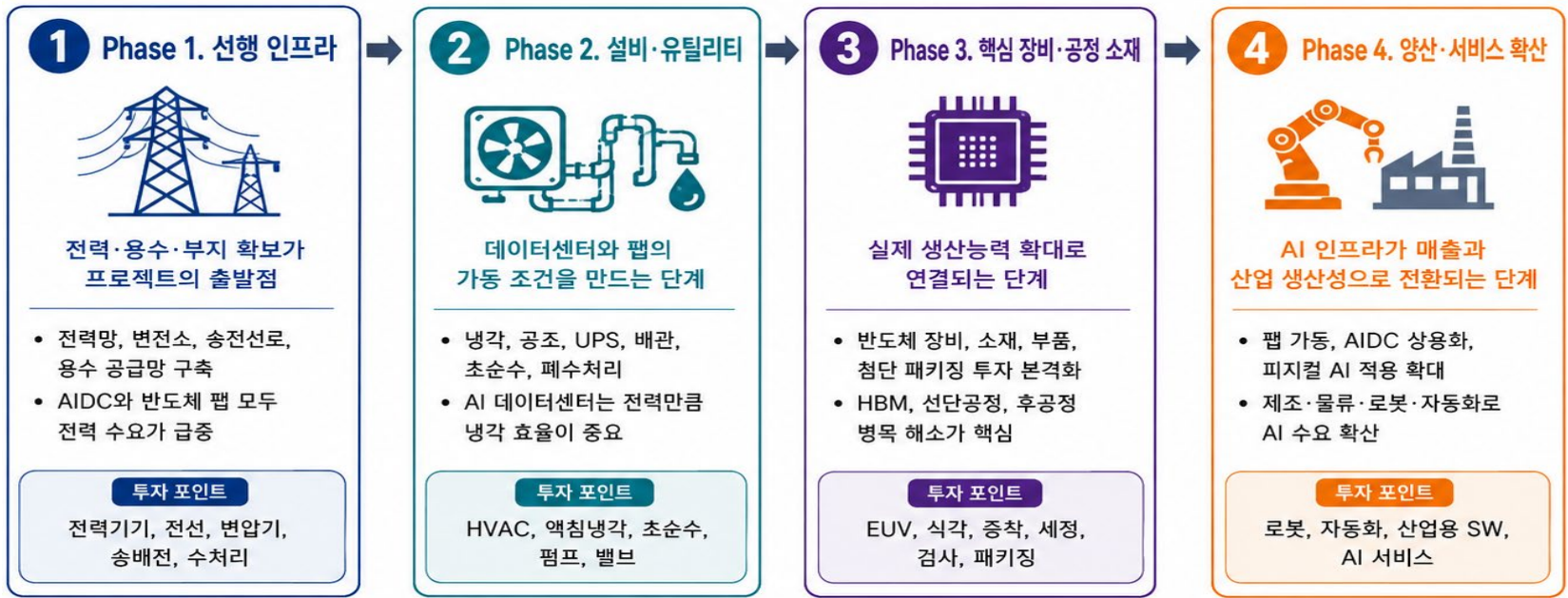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ssue Dive

이제부터가 '진짜'

- 약 5,0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설비투자는 단기간에 매출로 인식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10~15년에 걸쳐 집행되는 장기 CapEx 사이클로 봐야 함. 따라서 총투자 금액보다 자금 집행 순서와 실적 인식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
-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팹이나 데이터센터 완공이 아니라, 선행 인프라 확보에 있음. 서남권 반도체 팹은 약 6.3GW의 전력과 일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고, AI 데이터센터는 총 18.4GW 규모의 전력 신규 수요가 예정
- 초기 수혜는 전력 인프라, 소부장, 건설 등과 같은 선행 밸류체인에서 먼저 확인될 것으로 예상

타임라인별 핵심 공정 및 투자 포인트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ChatGPT로 재구성

리스크와 체크 포인트

- 프로젝트 규모가 큰 만큼 리스크도 다양하지만, 핵심은 수요 부진보다 인프라 병목과 실행 지연에 있음. SK 최태원 회장은 “용인 클러스터 첫 발표부터 첫 팹 착공까지 6년 이상 소요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 지원을 요청
- 정부는 국가가 직접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슈퍼 패스트트랙’ 행정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또한 ‘올원 에너지 총동원 체제’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쓰일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계획.
- 미국 CHIPS Act, 대만 산업혁신조례,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처럼 세제·전력·부지·인허가·공급망 안보를 패키지로 묶는 ‘통 큰’ 정책 설계가 필요

메가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

핵심 리스크		주요 내용	체크 포인트
인프라 공급 병목	전력 공급 지연	· 대규모 전력 인입 필수(서남권 최소 6.3GW) · 블랙아웃 팹 리스크 발생 가능성	· 신장성 변전소 구축 일정 · 345kV 송전망 착공·통전 시점
	용수 부족 및 물 안보 갈등	· 대량의 초순수와 공업용수 필요(일 65만 톤+) · 기후 변화와 농업용수 전용 논란 갈등	· 댐·도수관로 증설 계획 · 공업용수 공급 승인,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및 행정 불확실성	착공 지연 리스크	· 대규모 산단 조성은 복잡한 절차를 거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약 6년 소요	· 산업단지 지정, 토지보상률 · 환경영향평가 통과 여부, EPC 계약
	입법 표류 및 지역 갈등	·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국회 논의 · 타 지역 소외론, 지방 간 이해관계 충돌	· 특별법 통과 여부 · 중앙-지방정부, 지자체 간 협약
시장 상황 및 투자 가변성	중장기 투자 계획의 변동 가능성	·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유동적	· 삼성·SK 설비투자 가이드선(공시) · HBM 수요 및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장기 수요 검증 필요	· 장기 공급 확대에 따른 전방 수요 지속성	·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흐름 · AI 서버 출하 및 HBM 장기 계약
고용 낙수효과 한계	자동화로 인한 고용 역설	·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 제한	· 고용지표 · 정주 인프라 수요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ChatGPT로 재구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시

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장래계획사항		26~'40년 국내 투자 비전	SK하이닉스 중장기 투자 전략	
2.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목적	당사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	
	세부내용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등 투자 . 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 1,650 / 광주 400 / DX 및 디스플레이 등 기타 . 천안 온양 HBM Fab 구축 . 광주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구미 휴머노이드 로봇라인 건설	SK하이닉스는 늘어나는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 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약 600조원) - 수요 전망을 반영하여 2033년까지 4번째 팹의 건설을 완료 후 생산 설비 및 장비 등 단계적 투자 2) 청주 생산기지 (약 100조원) - 신규 팹 건설과 생산 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 HBM 후공정 첨단패키징 등 역량 강화 3) 서남권 클러스터 (약 400조원) - 새로운 생산 거점인 서남권에 부지 확보, 팹 건설, 생산 설비 도입 등을 포함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추진일정	시작일	2026-01-01	-
		종료일	2040-12-31	-
	예상투자금액	약 2,450조 (반도체 약 2,100조)	약 1,100조원	
기대효과	당사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능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장애요인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해당규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 계획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공시할 예정임	

자료: DAR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압도적인 투자 규모 및 다각화 반도체(약 2,100조 원) 외에도 천안·온양 HBM Fab 구축, 구미 휴머노이드 로봇라인 건설 등 차세대 먹거리 영역까지 확대

SK하이닉스: HBM 핵심 경쟁력 강화 청주에 신규 팹 건설 및 HBM 후공정 첨단 패키징 역량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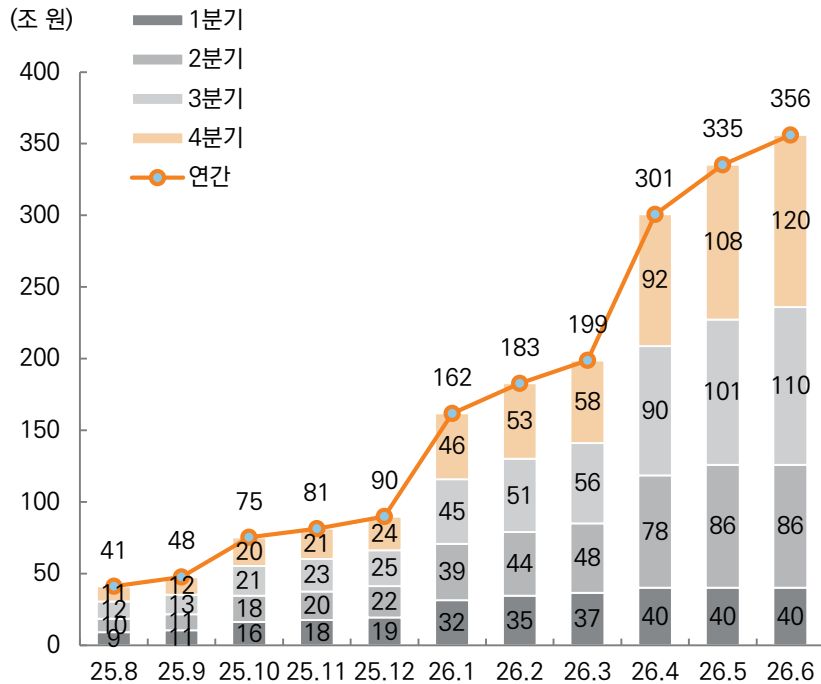
실제 투자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경기 변동이나 이사회 최종 승인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율될 수 있음

Weekly Preview

K-반도체에 쏠린 이목

-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7일(화)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발표 예정. 메모리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전 포인트는 ① DRAM·NAND ASP 지속성 ② HBM 공급 확대 속도 ③ 장기공급계약(LTA) ④ 파운드리 선단공정과 첨단 패키징 활용도 등에 주목.
-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 10일(금, 현지시각) SK하이닉스 ADR이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시장에 상장할 예정. ADR 상장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확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약 \$30B(45조 원) 규모의 자금 유입을 통해 신규 투자 및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 자금 조달 규모는 2014년 알리바바가 세운 기록을 뛰어 넘어 역대 최대가 될 전망. 오는 13일 레버리지(+2X) 및 인버스(-1X) ETF 상장 예정.

2026년 삼성전자 분기 및 연간 영업 전망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주: 6월 말 기준

SK하이닉스 ADR 미국 나스닥 상장

항목	상세 내용
거래소	Nasdaq Global Select Market
티커	SKHY
금융 상품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merican Depositary Receipts, ADRs)
공모 주식 수	약 1,780만 주
상장 주식 비율	약 2.5%
공모 규모	약 45조 4,500억 원 (~294억 달러)
시가총액 (신청 당시 기준)	약 303억 달러
거래 시작 예정일	2026년 7월 10일 예정 * 13일 SKHX(+2X), SKHZ(-1X) ETF 상장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